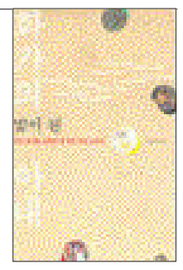
북스

Books

‘무한 헌신’의 내조자…때론 영혼의 동반자

화가의 빛이된 아내 정필주 지음

우리의 화가를 키워낸 10명의 아내 이야기



화가가 가난하다는 것은 운명인지도 모른다. 그 지난한 삶을 온몸으로 지탱하며 남편의 예술혼을 키워온 아내는 남편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조연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난했던 화가의 아내들은 부엌, 병실, 서점, 재봉틀실, 학교, 길거리 등 자신만의 ‘아틀리에’에서 적극적으로 예술을 창조해낸 ‘인생 행위예술가’ 였다.

‘화가의 빛이된 아내’는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장식한 김환기, 박수근, 이중섭, 장욱진, 박길웅, 김기창, 양수아, 이응노, 하인두, 문신 등 작가 10명의 내조자를 주목한다.

김환기의 아내 김향안, 김기창의 아내 박래현, 이응노의 아내 박인경, 하인두의 아내 류민자, 문신의 아내 최성숙은 남편과 함께 예술의 길을 걸었던 인물들이다.

김향안은 예술의 경영자이자 매니저였다. 그는 남편의 해외활동과 비평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김환기의 입지를 굳혔다. 남편 사후에는 ‘환기미술관’을 건립하고, ‘프리환기’ 공모전을 운영하는 등 꾸준히 김환기의 작품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운보 김기창의 아내 박래현은 동료화가로서 그의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병마에 좌절한 화가 하인두를 캔버스 앞에 앉게 한 사람도 아내이자 화가인 류민자다.

생활고를 몸으로 지탱하면서 화가를 빛나게한 아내들도 있다.

‘국민화가’ 박수근의 아내 김복순은 ‘박수근표’ 여인상의 주인공이다. 남편의 모델이었던 그는 박수근의 작품 속에서 전형적인 한국여인으로 승화됐다.

기행을 일삼는 예술가로 살았던 장욱진의 아내 이순경도 남편의 기질을 인정하고 맞춰가며 삶을 꾸린 인물이다.

이중섭의 아내 이남덕은 김복순과 정반대의 영향을 끼친 내조자다. 전란을 피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간 이남덕은 이중섭이 외롭게 최후를 맞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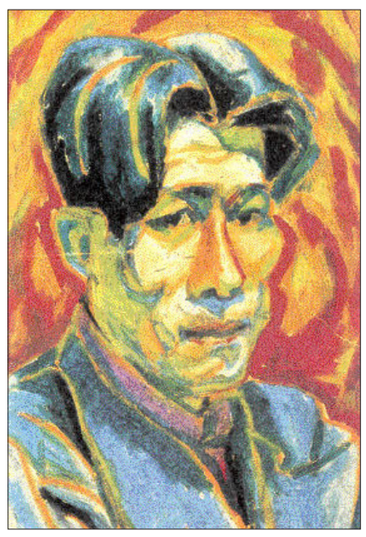
저자는 ‘일본 미츠이 물산 중역의 딸인 그가 이중섭을 만나 한국에서 보낸 7년이라는 세월동안 겪었던 시련을 못본척 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한다. 이남덕과 아이들을 향한 이중섭의 사랑이 결국 이중섭의 작품으로 승화됐기 때문이다.

박길웅의 아내 박경란의 이야기는 눈물겹다. 그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을 잃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29년 동안 남편의 작품을 지키고 있다. 그는 생활고에서도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남편의 그림 80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호남에 추상미술의 씨앗을 뿌렸던 양수아 화백의 아내 곽옥남은 50여년 동안 미싱자수로 화가를 뒷바라지 했다. 50여년 동안의 미싱일 때문에 굽은 그의 등에는 양수아의 꿈과 애환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아트북스·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양수아 화백의 자화상〈왼쪽〉과 그의 아내 곽옥남.

한홍구의 ‘대한민국史’ 네 번째 이야기 펴 내

한국 현대사를 읽기 쉽게 풀어 온 역사학자 한홍구가 ‘대한민국史’ 네 번째 이야기를 펴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한홍구의 통통 튀는 역사이야기’의 마무리 성격을 띠고 있다. 386세대의 이야기에서 현재도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한-미FTA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노근리 학살과 한미관계, 2부는 국가보안법, 3부는 박정희와 독재자, 4부는 신영복에서 386까지 등을 주제로 한국의 희망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우리 현대사가 일제, 분단, 독재 등의 고통으로 가득차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망이 아닌 희망의 역사”라고 주장한다.

〈한겨레출판·1만1천원〉

배꼽 잡는 웃음과 능청…그 뒤의 슬픔

성석제씨 2년여만에 소설집 ‘참말로 좋은 날’ 펴 내

‘글담’ 걸쭉하기로 유명한 ‘이야기꾼’ 성석제(46·사진)씨가 2년여 만에 소설집 ‘참말로 좋은 날’을 펴냈다. 책에는 2년 여 동안 문학 잡지 등에 게재했던 중단편 소설 7편이 묶였다.

저자는 이번에도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배꼽잡는 웃음과 능청, 재치 등을 보여주는 ‘성석제식 소설’을 내놓았다. 다만 그의 화술은 조금 바뀌었다. 문학평론가 황호덕은 이번 작품들에서 “예의 ‘숭고한 희극’이 사라지고 대신 ‘말이 말이 아니고 법이 법이 아닌’, ‘벌거벗은 생명’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애써 “그 동안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담았고, 변화는 남들이 느끼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책 속 ‘작가의 말’에 보충설명이 돼 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그대로다. 그대로 있다는 기분이 든다… 내가 바뀐 것인가. 그럴지도 모른다. 바뀌는 게 당연한가. 그럴지도 모른다.”

고욤나무 열매를 보고 무미(無味)에 가까운 순두부를 먹으며 젊은 날을 회상하는 두 친구(‘고욤’), 고향을 찾아 마주치는 장면들에서 비애를 느끼는 사내(‘환한 하루의 어느 한 때’), 단 한 순간의 사고로 고귀했던 인생이 어스러지는 전도사(‘고귀한 신세’), 어색한 술자리에 동석해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악어는 말했다’) 등 소설 속 주인공들은 저자가 주는 웃음과 농담 뒤에 어쩐지 아련한 슬픔 따위를 간직하고 있다.

재산을 두고 동생과 경쟁을 벌이다 휴대전화 때문에 아들과 살육전을 벌이는 아버지(‘아무것도 아니었다’)와 무능한 화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이고 살던 집은 물론 집안이 풍비박살나는 장면(‘저만치 떨어져 피어 있네’)에서는 더 이상 웃음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문장도 이미 바싹 말라있다.

황호덕은 다시 말한다. “이러한 절단의 순간에 드러나는 메마르고 살벌한 삶에 대한 쓰기야말로, 또 폐허의 순간에서 제시되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숭고함과 희극성의 경계에서 작업해온 성석제만이 물을 수 있는 가장 윤리적인 질문일지도 모른다.”

〈문학동네·9천5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i

▲캐치 더 베를린, 언더 더 베를린=독일로 유학을 떠났던 이동준씨가 박사논문 대신 독일의 언더 예술과 삶을 담은 8년간의 기록물을 펴냈다. 폐허가 된 백화점 건물을 무단 점거한 예술가들의 집 ‘타헬레스’ 스토리 등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노브·1만3천원〉

▲누구나 알아야할 서양 고대 101가지 이야기=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소개한 책이다. 베른 대학교의 슈테판 레베니히 교수는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고대의 정치, 사회, 종교, 예술 등을 소개한다. 클라우디아 메르틀의 ‘서양 중세 101가지 이야기’도 함께 발매됐다. 〈플래닛 미디어·각권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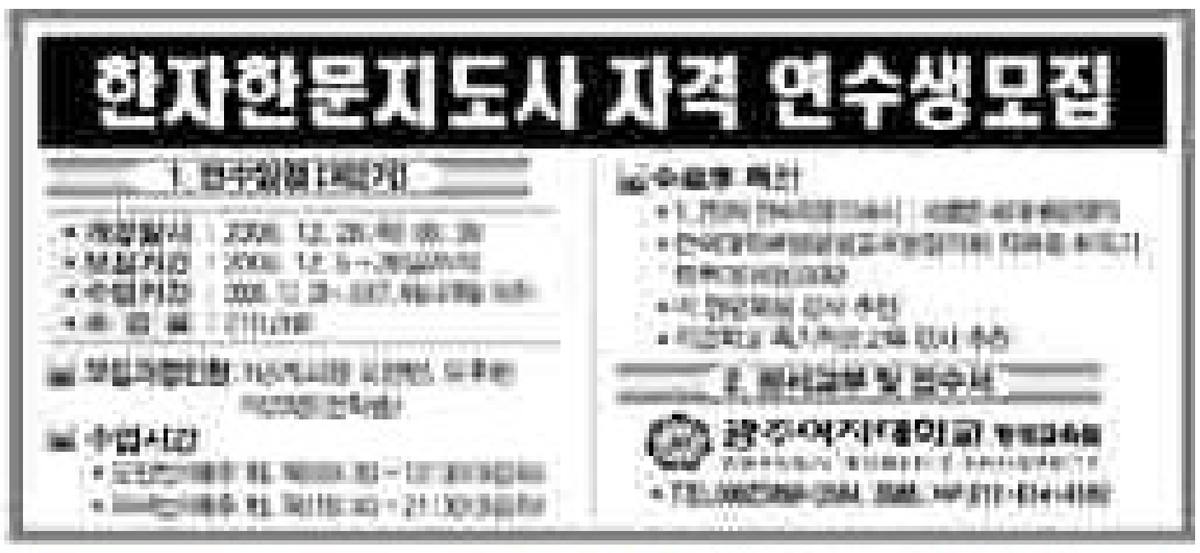
▲세상을 움직인 명문 vs 명문=시간이 흘러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글귀가 있다. 저자 함규진은 갈릴레이의 편지,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마틴 루터 킹의 연설 등 한 시대를 흔들어 놓았던 38편의 명문을 소개한다. 〈포럼·1만2천원〉

▲배추가 돌아왔다1,2=‘배추’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괴짜 할아버지 방동규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 ‘바람처럼 자유롭게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다산책방·9천800원〉

▲절대 울지 않아=여성들의 일상을 예리하게 통찰한 소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야마모토 후미오의 소설집이다. 불량학생을 사랑한 양호교사, 사랑하는 사람을 잊기 위해 직업도 포기하고 가사에만 매달리는 주부 등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15명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을 그린다. 〈창해·9천원〉

▲계영희 교수의 명화와 함께 떠나는 수학사 여행=수학을 역사와 미술을 통해 쉽게 풀어냈다. 계영희 교수는 빵을 나눠먹는 생활을 했던 이집트 문명에서 분수를, 명화 ‘최후의 만찬’의 원근법을 통해 그래프를 설명한다. 〈살림·1만3천800원〉

▲결혼 생활의 거짓말=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에 심리 상담 전문가로 출연하는 로빈 L.스미스가 결혼을 앞둔 이들을 위한 조언을 담은 책을 펴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예비 부부들에게 충고를 전한다. 〈북앳북스·9천800원〉

▲노벨상 수상자 36인의 학습법=아인슈타인, 파블로프, 뢴트겐, 퀴리부인, 헤밍웨이 등 노벨상 수상자들이 전하는 학습법과 성공법칙을 소개한다. 저자 탄샤오위에는 노벨상 수상자들의 경험을 소재로 ‘창조적 공부’ ‘순서대로 전진하라’ ‘흥미를 느껴라’ 등 36가지의 공부법을 알려준다. 〈리틀북·9천500원〉

▲스물아홉, 그가 나를 떠났다=프랑스 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레지스 조프레의 베스트 셀러로 2005년 ‘페미나 상’ 수상작이다. 결별 대리 통고와 이미 선언한 결별을 좀 더 부드럽게 통고하기 위해 이별을 잠시 유보하는 희극적인 사건을 통해 인간관계의 추함과 폭력성을 꼬집는다. 〈푸른숲·1만원〉